



고려요양병원에서는 2017년 제1회 EH-QPS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고려요양병원 2주기 인증 획득



(사진출처: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이번 2017년 7월 5일 ~ 7월 7일(3일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2주기 요양병원 인증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2017년 11월 20일 인증서와 함께 교부받았다.

인증의 통과도 중요하지만 그 평가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1주기(203개 항목)에 비해 2주기(241개 항목)는 평가항목이 증가하였고, 유무의 평가에서 “상”, “중”, “하”의 평가로 세분화 되었다. 고려요양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241개 항목 중 239개 항목에서 “상” (80점~100점)을 받았고, 2개의 항목에서만 “중” (60점~80점)을 받았다. 이는 현재까지 전국요양병원 2주기 평가를 받은 병원 중 가장 좋은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훌륭하게 2주기 인증평가 결과를 받기 위해 노력하신 고려요양병원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글 : 이동산 (고려요양병원, 행정부장)

제1회 EH-QPS 경진대회 개최

고려요양병원에서의 QPS 경진대회는 이름부터가 달랐다. QPS(Quality and Patient Safety)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이라는 단어 앞에 EH 라는 단어가 더해졌다. EH(Employment Happiness) 직원행복이다. 직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어르신들에게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는 뜻에서 시작한 것이다.

고려요양병원에서의 경진대회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증을 위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보여주기 식과는 사뭇 다르게 시작되었다. 우리 병원만의 차별성을 가지고 특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EH-QPS가 진정성 있게 실현되도록 많은 이들의 고민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2017년 제1회 EH-QPS경진대회 당시모습

얼떨 곁에 시작된 경진대회 준비이지만 직원들은 하나 둘씩 젖어들기 시작했으며, 경진대회 직전에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마치 하나가 된 듯 했고,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우리병원의 희망을 보았다.

나에게 EH-QPS 경진대회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다면 ‘고려요양병원의 미래다’ 라고 말하고 싶다.

- 글 : 김미희 (고려요양병원, QI전담간호사)

제1회 EH-QPS 경진대회 소감문

QI 경진대회를 마치며...

2017년 11월 28일 본원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한 QI경진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총 4개팀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부서에서는 손 위생 수행률 증진을 통한 손 위생의 습관화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하나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으나, 팀장님을 비롯한 전 간호인력들이 협심하여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새롭게 알게된 지식이나 사실들을 공유하면서 그 고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간호인력들의 친목도 도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계기가 되어 보람있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손 위생 수행률 증진과 손 위생이 습관화되어 가는 모습에 내심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QI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선활동을 전개해나감으로써 환자, 보호자 및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글 : 한길수 (고려요양병원, 3병동 간호팀 간호사)

2017년 첫 QI 경진대회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며...

얼마만에 QI인지 모르겠다. 예전 성모병원 다닐 시절 QI가 무언지도 모르고 경진대회 한다고 해서 QI 학회들어가서 자료수집하고 공부하고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처음 경진대회를 한다고 했을때...

음... 급성기 병원도 아닌데 요양병원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세상에 안되는건 없다는 생각한다.



두바다찬솔팀 금상 수상



사랑의손씻기팀 은상 수상



언제나감사하는마음팀 동상 수상

단지 그걸 안해서 문제가 되지. 주제선정부터가 고민이었다.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하고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쉽고 편하게 해서 능률을 올릴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에러를 적게 내고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올려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그 시간에 어르신들과 조금 더 보낼 수 있으니 그것이 곧 어르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제 선정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Brain(EMR) 시스템에 관하여 정하게 되었다. 쉬운 주제는 아니었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을 모아 해결해 낼 때마다 끈 끈한 동기에도 느끼게 되고 준비하던 내내 즐거웠던 기억들이 또 하나의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았다.



춤으로 쉽게 배우는 손씻기



작은 축제분위기의 고려요양병원 경진대회

매번 회의때마다 모여서 의견을 내고 때로는 벽에 흰 도화지를 붙여두고 우리 멤버들의 글씨로 채워질 때마다 QI라는 것이 생소했을텐데도 협조해 주고 의견을 내주신 우리 1병동 간호팀 식구들에게도 감사한다. 덕분에 재미있고 한결 쉽게 일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 글 : 박은경 (고려요양병원, 1병동 간호팀 간호사)

EH-QPS 경진대회를 마치고...(웃음의 꽃이 피기까지)

처음 팀장님으로부터 경진대회 한다고 미팅하며 체조를 개발할 때까지는 QI 활동의 비중을 느끼지 못했다. 노래선정, 체조개발을 짜며 멤버들끼리 친밀감이 더 생겼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무기력하고 지루해 하는 모습이 눈에 더 띄었다. 스피커에서 ‘아빠의 청춘’ 노래가 흘러나오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얼굴과 표정을 보았다. 웃으며 일어서서 팔을 흔들고 약간의 부끄러움 섞인 얼굴로 손뼉을 치며 거의 종일 누워있던 어르신들도 앉아서 어설픈 체조를 따라했다. 자식과 손자들도 주지 못했던 신바람과 흥이었다. 감동 그 자체였다. 업무로 지쳐있어서 QI활동을 숙제하듯, 마지못해 체조를 하던 우리에게 어르신들의 흥과 즐거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주었다.

QI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은 즐거움과 웃음의 꽃이 피었고 우리는 어르신들로부터 받은 에너지로 삶감과 돌봄의 꽃을 피웠다.



실버파이팅팀 대상 수상

- 글 : 박연미 (고려요양병원 2병동 간호팀 간호사)

고려요양병원 임직원 30여명 신라의 달밤 걷기 대회 참여

최영미 팀장 신라의 달밤 후기



2017년 11월 4일(토) 고려요양병원 임직원 30여명이 신라의 달밤 165리 걷기대회에 참여하였다.

생애 첫 도전... 운동도 안했던 우리에게 30Km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면에서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예전에 한번 참석했던 사람들은 “추위와의 싸움”, “외로움과의 싸움”, 그리고 “나와의 싸움” 이라고 했다. 나와의 싸움... 제일 마음에 와닿는 말이다.

병원장님께서 저녁은 고기로 든든하게 먹고오라 하셨다. (정말 힘들다는 걸 알았다면 몇 점이라도 더 먹었을텐데) 체력비축을 위해 일찍 경주 황성공원에 도착하여 돼지갈비 5인분에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우리병원식구들이 모이기로 한 시민 체육관까지 공원을 가로질러 걸었다. 9층 석탑 아래서 병원장님을 비롯해 우리식구들을 만나고 저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흥분과 때론 알지 못하는 도전에

대한 걱정이 들어 서로가 인사를 하고 기념품을 받고 간식을 챙기고 제일 중요한 물을 마지막으로 챙기며... 찰나의 시간들이 정겹기만 하다.

처음 출발은 순조로웠다. 서로가 손을 잡고 애기 꽃을 피우며 수다 삼매경에 빠져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고 보름달빛을 배경삼아 걸었다. 한 10Km는 족히 걸었나 싶는데 아직 3Km란다. 이런...1/10이다. 이런... 과연 완주를 할 수 있을까 점점 걱정이 많이 든다. 서로 잡은 손은 어느새 땀이 흘러 손가락만 잡고 가게 되고, 그렇게 신나게 떠들던 우리들의 목소리도 점점 작아지고 어느 순간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정말 힘들다... 정말 힘든데... 한참을... 얼마나 더 가야하는지 모르겠다. 아무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래도 그 즈음... 1/3지점(11Km) 스탬프 찍어주는 사람이 보인다. 한결 기분이 좋아진다. 기분이 좋다 못해 행복하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힘내세요. 화이팅!!” 그 목소리에 힘이 난다. 또 걸어본다... “다른 병동 녀석이 힘내세요~”라며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간다. 보문단지를 들어서니 형형색색 예쁜 빛을 받아 나무들이며 주위배경이 한쪽의 그림 같다. ‘내가 언제 이런 그림을 볼까?’ 절로 감탄사가 나온다. 밝은 달빛 아래 빛나는 보문 단지의 풍경은 나를 황홀하게 만든다. 시간은 12시를 다가가고 있다... 그렇게 어두운 길을 말없이 걷고 또 걷는다. 웬지 달빛이 외롭고 슬프게도 보인다.

두번째 스탬프 찍는곳 도착... 2/3(24km)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지고 발가락, 발바닥에 물집은 터지고 왼쪽 발바닥에 사방통으로 인해 걷기가 아주 많이 힘들어진다. 옆에 아주머니께서 반창고며 근육 스프레이 등 주신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모두 힘들게 열심히 걷는걸 보니 아파도 포기할 수가 없다. 나만 힘들게 아니구나. 모두들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구나. 중빼리 녀석들은 아랑곳 없이 내리 달려서 안압지를 돌아 나간다. “야~ 이정도는 껌이지. 껌^^”이라며 내게 들으라는 듯이 내달린다. ‘부럽다...부..럽..다.. 무지하게...’

이제부터다. 홀로 나와의 싸움이 시작된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다리는 너무 아프고 정말 최악의 여건이지만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이제 6Km만 더 가면된다. 더 이상 포기는 없다. 아파도 절뚝거리더라도 추위도 몸을 웅크리면서라도 나는 걸어간다. 저 멀리 출발했던 곳이 보인다. 기쁨의 눈물이 난다. 뛰었다. 6시간을 걸었다. 그 누구도 무모하다고 중도에 빠져나와 차한잔 마시면서 쉬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완주증을 받고 메달을 받는 순간... 내가 또 한번 해냈다는 성취감에 나는 웃었다.

비록 몇날몇일 근육통에 터진 물집이 쓰라려 걷는게 힘들었지만 영광의 상처에 스스로 흐뭇하다. 올해 해봤으니 내년에는... 다른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그래도 육신 거리는 영광의 상처들은 내게 귓속말을 한다. 또 도전하라고... 내년을 기약하며...

- 글 : 최영미 (고려요양병원, 1병동 간호팀장)

정순희 팀장 신라의 달밤 후기



몇년 전부터 병원장님께서 ‘경주 신라의 달밤 걷기대회’에 참석 하자는 권유가 있었다. 그때마다 “자신이 없어 다음에 갈게요”라고 했는데 올해는 용기를 내어 참석하게 되었다.

보문호의 아름다움에 탄성을 지르며 달빛을 벗 삼아 30km 단축코스에 도전했다. 출발 시작점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직원들과 함께 출발을 하지 못했다. 걷던 중 부장님과 한번 조우하고 다른 직원들은 만나지 못해 아쉬웠다. 광명희 샘과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좋았고 코스 중간 중간 준비해 준 동굴레 차, 꿀 차를 마시며 감사함을 느끼면서 서로 격려하며 힘을 내어 걸었다. 마의 구간인 강변코스부터 체력이 떨어지고 발목과 발바닥에 통증이 느껴지며 힘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도착지점이 멀게만 느껴졌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였다. 마지막 도착지점에서 완보증과 메달을 받고 사진 한 컷을 찍으면서 마음속으로 나 자신을 칭찬해 주었다. 나에게는 또 하나의 추억이 만들어졌다.

다음에는 우리 2병동식구 모두 함께 도전하여 즐거움을 나누고 성취감을 서로가 나누었으면 한다.

- 글 : 정순희 (고려요양병원, 2병동 수석팀장)

전양례 팀장 신라의 달밤 후기



“아~ 신라의 밤이여, 불국사의 종소리 들리어온다.”
어디서 들어 본적 있던 흘러간 노래가 입안을 맴돈다.
신라의 달밤 165리 걷기대회
다소 생소한 이름...
대회취지에 맞게 함께 근무하는 동료와 그렇게 저녁부터 새벽까지 달빛 아래서 걸었다.
추위와 싸워야 할 것 같았고, 30Km라는 긴거리와 사투를 해야할 것 같은 불안감...
투덜거리던 소리가 달빛의 아름다움에 취해 탄성을 자아내고, 재잘재잘 뛰 그리 할말들이 많은지...
참가한 3병동 식구들은 그렇게 달빛을 벗삼아 아름다운 경주의 경치에

서로를 격려하며 의지하며 30Km, 6시간을 완주했다.

발가락 사이 물집이 터지고, 추위와 싸우며 완주하지 못할것 같던 긴 시간들을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했기에 완주라는 값진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

내년에 또 하겠다는 깊은 장담은 못하겠지만 너와 함께 당신들이 있다면 또 그렇게 새벽을 걸어 볼 의향도...

어제와 같은 달이라 생각한 그달이 오늘도 머리위로 떠오른다.

그날에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던 달빛을 생각하며, 아름다운 추억사진 한잔을 저 달빛속에 걸어본다.

- 글 : 전양례 (고려요양병원, 3병동 팀장)

공유진 간호사 신라의 달밤 후기

달 밝은 밤에 경주의 멋진 야경을 보며 30km를 걷는다는 것이 좋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여서 더 행복한 걸음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글 : 공유진 (고려요양병원, 3병동 간호팀 간호사)



재활치료를 통한 재택 복귀를 지원하는 개호노인보건시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사회의료법인재단 텐신도이다.

텐신도 법인의 시설 중 개호노인보건시설인 요우코우엔(陽光苑) 개호유로노인홈 코우후우엔 (光風苑) 위주로 견학을 하였다. 요우코우엔(陽光苑)은 병원은 아니나 의사, 간호사, 치료사, 개호복지사 등이 협력하여 재활치료를 통한 재택 복귀를 지원하는 곳이다.



TQM활동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직접 만든 활동 게시판
라도 각종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곳은 재활치료실이 한 가운데 위치하고있다. 이유는 다른 사람의 재활치료 모습이나 재활치료실이 환자 자신의 눈앞에 있으므로 재활의 동기를 강하게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환자들 간의 스스로의 비교는 여러모로 재활의 효율을 높여 줄 것이라 기대되었다. 나와 비슷한 다른이의 성취는 나도 할 수 있을 거란 용기를 줄 것이고 때로는 경쟁심, 때로는 협력심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요우코우엔(陽光苑)의 다른 특징은 TQM(Total, Quality, Managment)활동으로 전 직원이 환자의 입장에서 요우코우엔(陽光苑)의 서비스 질에 대하여 생각하고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 것이 하루하루 발전된 요우코우엔(陽光苑)을 만들어 나가는 듯 했다.

코우후우엔(光風苑)인 경우에는 개호보험(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함)을 적용받는 어르신들의 주거공간으로써 텐신도 법인의 데이케어와 같은 여러 개호보험 서비스와 연계하여 어르신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더

코우후우엔(光風苑) 안에는 일반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었다. 우리가 견학을 간 시기에는 여자어르신들의 목욕을 위하여 목욕탕욕조에 예쁜 꽃잎을 띄워 놓은 점이 참 인상 깊었다. 일본 특유의 섬세함과 친절함을 잘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다.



방 입구마다 평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인형을 올려두었다



여자어르신들의 목욕시간에 맞춰 띄어놓은 꽃잎

이번 견학을 통해 느낀 점을 정리한다면.....

모든 것이 환자의 중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환자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수많은 생각들로 병원을, 센터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환자 스스로가 그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시스템이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시설, 의료진으로 무장하고 있어도 환자의 의지 없이는 그 효과를 내기 힘든 만큼 우리보다 수십 년을 앞서서 고령화된 사회를 지나오고 있는 일본을 보면서 배울 점도, 느낀 점도 많은 연수였다.

갑자기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실천할 수 있는 부분, 현재 우리 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연수를 통해 변화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 사람은 충격과 감동을 통해서만 변화한다고 앞서 언급하였다. 지금 나의 변화는 감동에서 기인한 것이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연수의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

일본 연수를 다녀와서 보고, 듣고, 느낀점을 고려월보에 3개월간 기획기사로 기재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글 : 유상원 (포항고려요양병원, 행정과장)

포항여중 학생 20여명 고려요양병원 봉사활동 참여



봉사활동에 앞서 봉사활동에 대한 시청각 교육 실시

되었으며, 학생들과 담당선생님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

2017년 10월 28일 토요일 「2017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포항여자중학교 20여명의 학생과 담당교사 선생님께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고려요양병원을 방문하였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기전 학생들과 담당선생님께서는 고려라운지에 모여 봉사활동 전 전반적인 요양병원에 대한 이해와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에 대한 시청각 교육 30분간 받았다. 병원이라는 익숙하지만 생소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이번 교육이 많은 도움이



지도교사 인솔하에 봉사활동 진행



봉사활동전 포항여중 학생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

이번 봉사활동에는 학생들이 예쁜 꽃을 손수 만들어 어르신께 직접 달아드렸으며, 손,발 마사지를 해드리고, 손톱 메니큐어를 칠해드리기도 하였다. 봉사활동 하는 동안 봉사활동 인솔 선생님과 함께 모여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노래를 불러드리는 등 의미있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예쁜 손주같은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온 꽃을 받으시고 어르신들이 무척이나 기뻐하셨으며, 학생들의 재롱을 보시고 너무나 좋아 춤을 덩실덩실 추는 어르신도 있으셨다.

학생들은 3시간동안의 봉사활동을 마무리하고, 정원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애완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학생들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하였으며,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눈에 두고두고 선하다며 다음 봉사활동을 약속하였다.



봉사활동을 마무리하고 병원정원에서의 기념촬영

고려요양병원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성금전달



고려요양병원 이호근병원장
지진피해 성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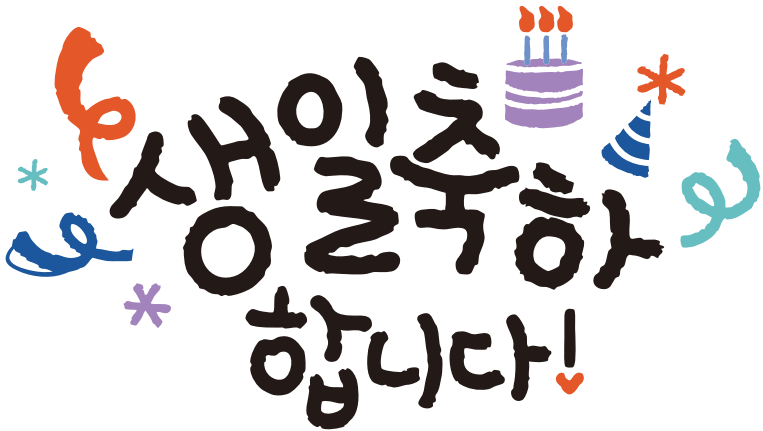
고려요양병원에서는 포항에 발생한 지진피해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고자 성금 500만원을 포항시에 전달하였다. 이날 고려요양병원 이호근병원장님께서 직접 포항시청을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하였으며, 포항시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께 작게나마 힘이 되길 기원하였다.

- 글 : 이준엽 (고려요양병원, 기획실장)

12월 생신자 명단

이름	음력생신	양력생신
안순희님		12월 01일
김만술님	10월 15일	12월 02일
송정자님	10월 15일	12월 02일
이장호님	10월 15일	12월 02일
김무학님	10월 16일	12월 03일
이봉희님	10월 25일	12월 12일
최달이님	10월 26일	12월 13일
이석용님	10월 27일	12월 14일
허길순님	11월 02일	12월 19일
전태원님	11월 03일	12월 20일
이금선님	11월 10일	12월 27일
정두봉님	11월 10일	12월 27일
심의정님	11월 12일	12월 29일
이승민님	11월 12일	12월 29일
강상선님	11월 13일	12월 30일

이름	부서	음력생신	양력생신
김복자	3병동	10월 30일	12월 17일
조영석	원무행정		12월 18일
이영우	원무행정		12월 05일
김현수	약제		12월 15일



병원 안내



달전고려요양병원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로 189
Tel. 054-262-2022



포항고려요양병원
경북 포항시 북구 불종로 73-2
Tel. 054-241-1011

고려요양병원의 이야기는 인터넷 / 모바일로도 전해드립니다.

포털 검색창에 [고려요양병원]을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 : <http://www.goryeoh.com>
블로그 : <http://blog.naver.com/hojunfoundation2009>